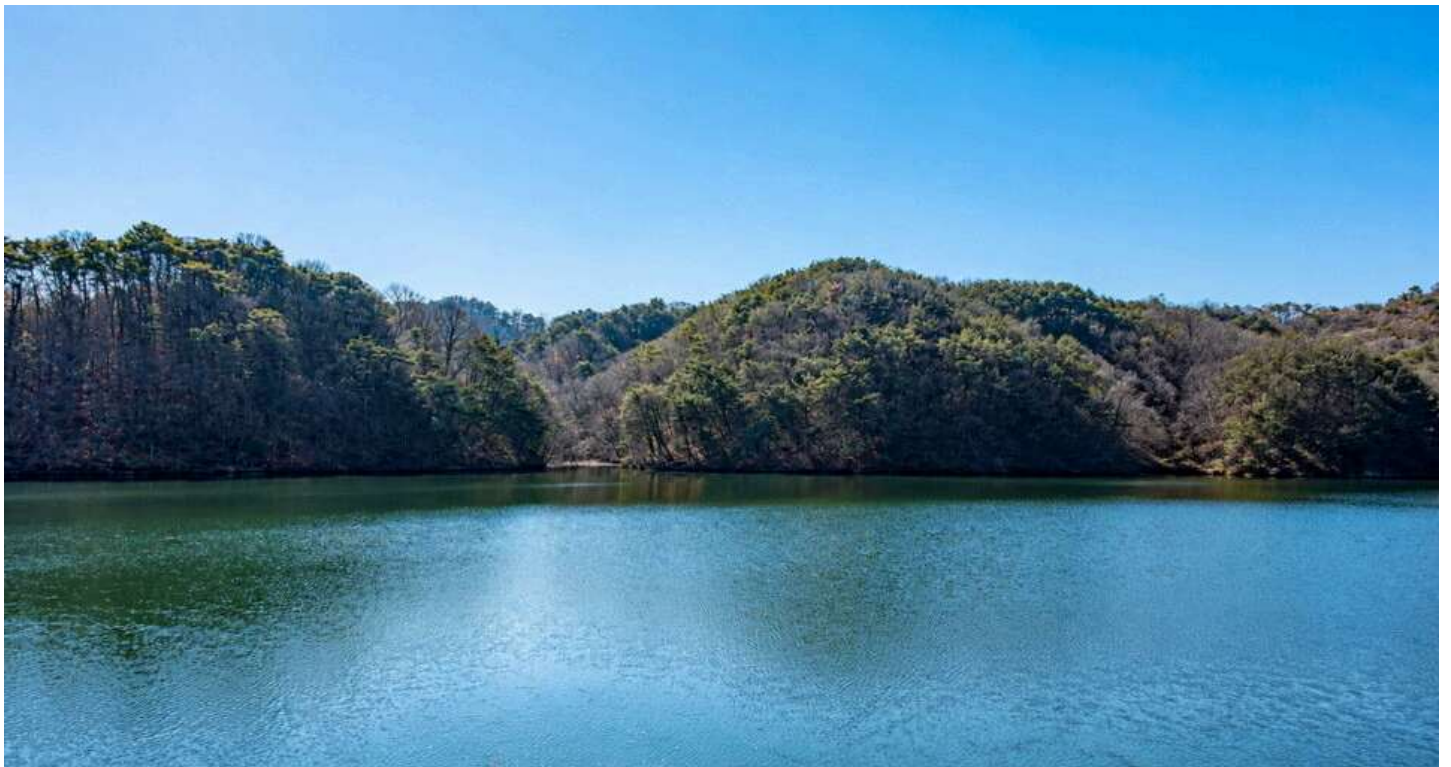


두현저수지에 150억 수변길…울주 새 명소 뜬다

✎ 최치선 기자 | ☎ 승인 2026.07.28 23:00

**울주군·한국농어촌공사 협약…2026년 하반기 착공
산책로·연결교량·정원 조성해 2027년 준공 목표**

[천지일보=최치선 여행전문기자] 울산 울주군 두현저수지가 물가를 따라 걷고 정원에서 쉬는 수변공원으로 변신한다. 오랫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저수지 주변에 150억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교량, 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청량읍의 생활환경과 여행 지도가 함께 바뀔 전망이다.



두현저수지 전경(사진=트래블아이)©천지일보 2026.07.28.

울주군은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‘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’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한다. 사업 대상지는 청량읍 두현저수지 일대로, 자연경관을 살린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여가 생활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.

